

은혜와 진리소식

2025년 11월 2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946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사업 실패로 인한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저희 가정에 감사찬송이
울려 퍼지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 강 미 연 -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고맙고 귀한 친구인데, 지금은 서로 소식을 알 수 없고 전하지 못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혼자 교회에 다니면서 가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생활하였습니다. 교회 집사님께 어머니 전도를 간곡히 부탁드려서 어머니도 가끔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아직 초등학교일 때 타지인 울산으로 이사해서도 혼자 교회에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지속하였고, 훗날 가족 모두 예수님을 믿고 섬기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간증거리를 경험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저는 학교 선생님과 택시 기사님에게 그리고 시장에서 열심히 전도하면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학교에서 역사와 과학 시간에 진화론과 같은 비성경적인 것에 대하여 제가 따지듯 질문하여 선생님이 곤혹스러워하셨습니다.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찍이 저에게 귀중한 믿음을 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셔서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20살에 안산으로 올라와, 큰언니의 인도로 이곳 안산에 교회당이 세워지기 전부터 은혜와진리교회에 소속하여 신앙생활을 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목사님의 설교에 매료되고 감화되었습니다.

청년부 시절에 청년구역장과 찬양선교단원으로 봉사하면서 한 형제를 전도하고 그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불신자를 전도해서 교회로 이끌고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고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좀처럼 자라지 않는 믿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시대 식구의 생활은 저에게 너무 크고 무거운 고난의 십자가였습니다. 주일이 되면 남편은 어떻게든 교회를 가지 않으려고 핑계를 대서 그런 남편을 교회에 데리고 가기 위해 저는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같은 믿음으로 만나서 교제하고 결혼하고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는 친구와 지인들을 보면 세상 그 누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 부러웠습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하면서 큰아이가 5살이 되었을 때 저는 우선 혼자 성가대에서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일에 교회에 있는 시간이 무척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아이들도 교회학교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제가 더 간절한 마음과 사랑으로 남편을 전도하지 못한 것을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장면과 거리에서 다급하게 전도하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 꿈에서 깨어난 후에도 한참을 통곡하듯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꿈 얘기를 해주며 또 펄펄 울었습니다. 그 이후 남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였고 아이들도 아빠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열심히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이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기계 설계가 전공인 남편이 회사에서 자리를 잡고 적지 않은 급여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내키지 않아서 기다려달라고 말한 뒤 작정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확신 있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저의 마음속에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겼는지, 남편을 만류하지 않았습니

다. 처음에는 사업이 잘되는가 싶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나오지 못하게 해서 회사 일은 잘 알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너무 힘들다면 저에게 회사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회사를 나가서 살펴보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남편은 기계는 잘 만들었지만 영업을 잘하는 성격이 아니었고 계산기 두드리며 경영하는 자질 또한 부족하여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있었습니다. 직원을 줄이고 사업장을 작은 곳으로 옮기는 등 긴축경영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렇게 회사일을 하면서 많은 부채와 경영난으로 인해 제 가슴이 찢고라들고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저의 믿음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한 줄기의 빛도 비치지 않는 캄캄한 터널속에 갇힌 것 같은 절망적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라도 제가 서 있는 것은 내 힘과 내 믿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굳게 붙들어주고 계심을 깨닫고는 회개하였습니다. 저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남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자리에 쓰러져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기적적으로 회복하였습니다. 교회의 목사님과 전도사님,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남편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셨고 저의 아이들과 친정 가족 모두 밤을 지새며 하나님께 기도 하였습니다. 남편은 심장에서 나온 혈액을 운반하는 가장 큰 동맥이 막혔는데, 안산에서 부천에 있는 병원까지 구급차로 이동하는 중에 흥해의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보존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술대에 눕기 전 의료진으로부터 심장의 30%가 꺾어질 것 같고 그러면 누워서 생활해야 하며, 또 어쩌면 수술 중에 사망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편을 살려주시고 또 심장도 15%정도만 꺾여져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치료를 도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남편의 부채로 회사가 더 어려워져 부득이 사업을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남편은 반대하였지만 제가 주도하여 폐업을 하고 부채를 일부 갚는 기업 회생절차를 밟았습니다. 집을 팔아서 일부 부채와 직원들의 밀린 급여를 해결하였습니다. 것처럼 남편의 회사에 들어가서 보낸 3년의 기간은 저에게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저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매일 경험한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저의 작은 차 안에서 매일 1인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운전하면서 또 주차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기도 하고 찬송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앙망하였습니다. 또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 니이다” 욥기 1장 21절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였습니다.

5년 동안 부채를 갚는 사이에 아이들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였습니다. 갚아야 하는 빚을 법원에서 판결받을 때, 앞날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제 마음을 짓누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며 힘과 용기를 북돋워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움을 잘 헤쳐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그 작은 빛 또한 갚을 능력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자 곧 제 마음이 평안해지고 강하고 담대해졌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제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 일하도록 섭리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후로 한 번도 빚 갚느라 염려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직장 밖에서도 전공인 기계설계로 더 돈을 모아 저축하며 안정된 생활을 하였습니다.

아이들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아 공부하고 바라던 직장에 들어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아이들 모두 청년봉사연합회와 교회학교에서 열심히 섬기며 봉사하고, 그리고 남편 또한 스스로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 이것입니다. 그리고 더하여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이 새 집에 들어가 살도록 도와주시고 섭리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저와 가족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역경을 잘 극복하게 해주시고 가정에 감사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말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린도전서 4:2) 하신 말씀을 마음에 굳게 새기고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구역공과 제3권 (4단원 :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제22과)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 본문 : 사도행전 3:11-26

• 요절 :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행 3:22)

• 찬송 : 찬송가 265장(새찬송가 516장), 379장(새찬송가 204장)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시기 위해 오실 것이라는 예언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되었습니다. 모세는 예언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신 18:15) 하였는데, 이 예언에서 언급된 ‘나와 같은 선지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행 3:22). 물론 예수님은 모세를 비롯한 다른 모든 선지자들보다 크신 분이시며, 모세의 선지자직조차도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의 주제가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은 그들이 완전하신 선지자로 오실 그리스도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었나를 잘 보여줍니다(마 5:17).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눅 13:33)고 하심으로 그 자신이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신 분임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이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이스라엘에게 부여하신 선민으로서의 역할에 대하여,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모스는 선민의 불의를 지적하고 사회 정의를 역설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호세아는 불행한 자기의 가정 생활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와 사랑을 계시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이 선포한 계시는 모두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참된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들의 예언들이 불완전하고 부분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임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신약 시대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필요를 충족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히 1:1~3上)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계시하신 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요 1:18) 하였고,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의 요청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요 14:9~10上)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2. 예수 그리스도는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비록 단편적으로 받은 계시였으나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연구하고 살피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덕분에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예언서를 상고함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 그의 대속 사역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몸소 천국 복음을 전파 하심으로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요 10:9) 하였고,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하심으로 그 자신이 구원의 길이심을 밝히 계시하셨습니다.

사복음서를 펴서 거기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 보십시오.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와 기적에 대하여 살펴보십시오. 누구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서를 상고한다면, 마치 밭을 갈다가 땅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예수님이 곧 죄인들의 구주시며 천국의 비밀이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던 농부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이 농부보다도 훨씬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농부가 차지한 보화는 세상에서 부자로 살게 해줄 뿐이지만,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골 2:2).

3.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떠나 잘못된 길로 행할 때 율법의 말씀으로 책망과 권면을 행하고 그래도 듣지 않을 때는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권력자들이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막고 듣지 않았으며, 때로는 괴팍한 사람으로 여기며 배척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므로 최악이 관영한 시대에 선지자 노릇을 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렘 20:7~10).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마 5:17)고 하심으로, 율법과 선지자의 부족함을 보충하고 완성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하나임을 밝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의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이나(마태복음 23장),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채 문자적인 해석에만 치중하던 자들에게 율법의 참뜻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 힘쓰신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보여 주신 것이라 하겠습니다(마 5:21~48, 12:1~13).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성육신과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완전케 하셨습니다(눅 24:25~27).

이제 성도들에게는 불신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 할 선지자의 사명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천국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031-443-3731~2, 446-9184
- 수원 : 수원시팔달구 장다리로314번길3 T.031-225-3731, 234-3732
-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031-486-3731~2
-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02-502-3731
-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031-318-3731~2
- 광명 :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18 T.02-894-3731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032-507-3731~2
-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031-462-3731
-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다길 5 T.02-2632-3731
-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031-395-8227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032-469-3742
-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032-652-3731~2

-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 (중산동) T.031-906-3731
-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031-497-3732
-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031-205-3732
-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031-567-3731
-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031-422-9200
-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031-227-5992~3, 227-3739
-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031-985-3731~2
-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031-662-3731
-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031-684-3731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041-555-3731
-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063-225-3731
-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031-863-3731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033-764-3735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02-459-3731
-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관동동) T.055-312-3731
-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031-337-0688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032-751-3731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충남로41번길 30 T.042-471-3736
-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168 T.031-763-3720
- 남양 :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031-355-3729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053-522-3731
-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041-667-3731
-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북로 55 (천천동) T.031-271-3731
-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031-8015-3731
-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041-353-3731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044-862-3732
-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063-239-1004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삼서면 내린천로 2572 T.033-463-1312
-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46-5 (황성동) T.054-772-7867
-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041-534-3731~2
-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031-662-3731
-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063-351-7518
-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055-752-6675
-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041-533-3731